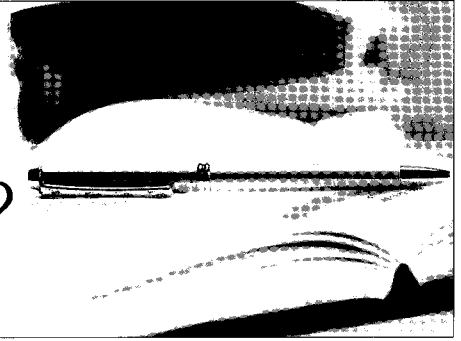


신선하다고 계곡 식당에서 도계한다?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다. 말은 몰라도 하늘만은 높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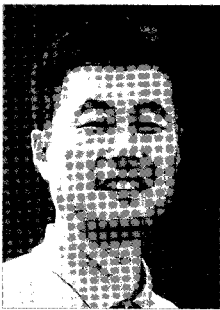
금년 여름은 이상 기온과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서 고생스러운 계절이었다. 잦은 비로 인한 적은 일조량 때문에 가을의 문턱에서 때 아닌 '김치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아마 김치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질문에 대답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장면은 세월이 흐르면 진풍경으로 기억될 것이다.

며칠 전 신선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기운이 감돌아 황금빛 들판과 알록달록 오색 단풍을 연출할 동네 앞산을 미리 보기 위해 이웃 지인들과 함께 일요일을 택하여 부부동반 등산을 갔었다.

등산로 입구는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인파로 북적대기는 매한가지였다. 막 걸리와 족발을 사거나, 삼삼오오 오텍 국물을 마시며 김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은 삶의 현장과 같아 늘 등산로 입구에 다다르면 골목길을 한참동안 바라보게 된다. 운동 삼아 오르는 산에 왜, 저렇게 큰 배낭을 메고 가나? 그 배낭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올 때마다 궁금하다. 필자야 간단한 복장에 달랑 물병 하나 든 조그만 배낭을 메고 가니 말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2시간 가량 산을 올라가면 정상에 다다른다. 아무리 낮은 동네앞산이라 해도 평소 운동을 게을리 했던 탓인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호흡은 100m 달리기 선수처럼 가쁘기 일쑤다. 그래도 힘들여 정상에 도착하여 물 한 모금 마시는 재미는 더없는 행복이 아닐까! 아무튼 동네 앞 등산은 특별한 일정과 계획 없이도 이웃 지인들과 운동 삼아 휴일마다 행하는 일과쯤으로 설명하면 가감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아무튼 힘들여 정상에 도착한 등산객들은 몇 분도 채 머물지 않고 곧장 하



이상배 이사
(주)삼화원중

산하게 되는데, 대부분 단체로 온 팀들은 점심 때에 맞추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자락의 중턱에 띄엄띄엄 단풍잎으로 물들어갈 차비를 하는 아름다운 등산객들 사이에 꽤나 이름이 알려진 듯한 산장가든으로 몰려간다.

방마다 등산객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성황을 이루는 그 가든의 영업 비결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닭을 즉석에서 잡아 요리를 해주기 때문이다. 땀 흘려 등산하고, 하산하는 길에 공기 맑고 조용한 계곡자락 산장에서 맛깔 나는 솜씨로 졸여진 닭볶음탕에 동동주 한 사발을 곁들여 마시는 광경은 너무나 포근하고 친근감을 갖게 한다.

그런데 그 많은 손님들이 닭볶음탕이 나올 때까지 식탁에 앉아 무료한 참에 즉석에서 갈색 토종닭을 현장에서 도계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일부러 손님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산 닭을 잡아서 도계하는지도 모른다. 그날은 나와 아내도 손님들이 쳐다보는 그 대열에 끼어 있었다.

닭이 발버둥치며 살아보려고 퍼덕거리는 그 모습, 또 한쪽에서는 물을 뜨겁게 끓여서 숨이 끊어진 닭을 담구고 나서 털을 뽑는다. 그 모습을 본 식당을 찾은 손님 중 일부는 “이렇게 직접 잡아주니 신선하고 맛이 있어”라고 반응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2003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산닭이 유통되어 전국적으로 질병이 전파돼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자가 도축을 허용했던 관련법인 축산물가

공처리법을 개정하여 자가 도축을 금지하는 절차를 밟았다. 법 이전에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현재 30대 이하 주부들은 도계된 통닭을 구입하여 손질하는 것도 불편하여 부분육을 선택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

물론 일부 가든에서 신선하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매일 닭 잡는 불편과 수고를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분명히 일시방편일 수 있다. 육계업 전체적으로 보면 적잖은 이미지 추락이 되기 때문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허가된 도계장에서 처리된 닭고기를 가지고 요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

물론 소규모 식당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겠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면책사유는 될 수 없는 일이다. 점차 국민건강을 위해 절차에 따라 도계된 닭고기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닭고기 가공업체들도 신선하기 때문에 자가 도계를 한다는 변명이 나오지 않도록 닭고기 유통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산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의 반응 역시 필자 생각과 별반 차이가 없었으니 말이다. 닭고기를 먹으며 살자고 발버둥 치던 닭의 모습이 떠올라 닭고기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고 한다. 몇몇 고객을 빼고는 산닭을 현장에서 잡아 제공하는 음식을 더 이상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산행 때에는 이 같은 모습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